

▶ 달러/원 주간 전망

• 단기 레인지 설정 구간... 관심 받는 금통위

서울, 5월20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글로벌 달러 방향을 살피며 단기 레인지 구간 탐색에 나설 전망이다.

예상되는 주간 환율 범위는 1,340-1,370원이다.

미국 고용과 물가지표 결과를 통해 금리인하 기대가 살아나며 투자심리가 개선되는 분위기지만, 시장참가자들은 연방준비제도(연준) 인사들의 발언과 경제지표 결과 따라 일희일비하는 흐름을 당분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도비시한 발언과 달리 여러 연준 인사들은 여전히 금리 인하에 신중한 스탠스다. 글로벌 달러 방향을 견인할 만큼의 무게감 있는 경제지표는 아니더라도 이번 주엔 제조업 및 서비스업 PMI 잠정치와 엔비디아 실적 및 다수의 연준 인사들 발언이 예정돼 있어 이에 따른 시장 분위기를 살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5월 연준 정책회의 의사록은 확인해야 할 재료다.

디스인플레이션 기대를 살렸던 미국 물가지표 결과에 1,340원대로 떨어진 환율은 일단 이 부근에서 바닥을 형성하면서 주거래 레인지를 형성하려는 분위기다. 이런 과정에서 금주에 있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가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지난 금통위를 기점으로 환율이 변동성을 확대한 이후 최근 이창용 한은 총재가 '통화정책 원점 재검토' 발언이 크게 주목받은 만큼 이번 금통위에 대한 관심은 적지 않다.

이전보다 환율이 크게 안정됐지만, 이 총재의 환율과 금리 경로에 관한 발언 수위 따라 국내 금융시장은 변동성을 키울 수도 있다.

한편, 중국정부는 지난주 부동산 부양책을 발표했다. 20일 중국은 대출우대금리를 결정하는데 시장은 동결을 예상하고 있다.

중국 경기회복을 둘러싼 확신은 여전히 부족하지만 금융시장에 대한 개선된 시각이 뒤따를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따른 중화권 증시와 위안 변동성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일 삼성전자 분기 배당지급에 따른 일시적인 1조원대 수급 변수는 감안해야 할 듯하다. 아울러 엔비디아 실적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이 결과에 따른 국내 증시 반응 역시 관심을 뒤야 할 것을 보인다.

▶ 주간 세계 5대 이슈

⊙ 주요국 PMI

이번 주 발표될 주요국 5월 구매관리자지수(PMI)는 더 밝아진 글로벌 경제 전망을 확인해줄 것이다.

유로 지역은 6분기 연속 정체 또는 마이너스 성장을 보인 이후 느린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미국 인플레이션은 이제 막 하락 추세를 재개했으며, 중국은 1분기에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했다. 따라서 글로벌 PMI는 경기 확장과 수축을 구분하는 50을 계속 상회할 것이다.

그러나 전기차 배터리부터 컴퓨터 칩까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가파른 관세 인상은 글로벌 무역과 성장에 대한 취약한 전망을 부각시키고 있으며 중국은 보복을 다짐하고 있다.

유럽 최대 경제국인 독일의 제조업체들은 이미 세계 무역과 지정학적 측면에서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미국 대선이 다가오면서 무역 긴장이 고조되면 중국의 회복세가 꺾이고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재점화될 수 있다.

현재 글로벌 PMI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는 쉽게 바뀔 수도 있다.

⊙ 엔비디아 실적 발표

22일 발표되는 엔비디아의 분기 실적은 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좌우하고 급성장하는 인공지능(AI) 분야에 노출된 다른 기업들에게도 반향을 일으킬 수 있다.

AI의 비즈니스 잠재력에 대한 기대감의 중심에 있는 엔비디아는 회계연도 1분기 매출과 이익이 크게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LSEG 데이터에 따르면 매출은 전년 동기 72억달러에서 248억달러로 증가하고, 주당순이익은 1.09달러에서 5.57달러로 급증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엔비디아는 이러한 높은 기대치를 충족시켜야만 주가를 계속 상승시킬 수 있을 것이다. 엔비디아 주가는 2023년에 세 배 이상으로 상승한 후 올해도 90% 이상 급등하여 시장 가치 기준으로 세 번째로 큰 미국 기업이 됐다.

⊙ 런던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들

런던 주식 시장의 위상 하락에 대한 말이 많다. 딜로직에 따르면 2021년 호황기에 유럽에서 가장 인기 있는 상장 장소였던 런던은 올 들어 현재까지 전체 유럽 IPO 거래량 중 단 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러 유명 브랜드가 런던 상장을 모색하고 있다.

중국 패스트 패션 브랜드 쉬인은 런던 증시 사상 최대 규모의 상장을 준비하고 있고, 다이아몬드 회사인 드비어스도 관심을 끌 만한 또 다른 기업이다.

글로벌 자금 흐름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인이다.

⊙ 뉴질랜드 중앙은행 정책회의

전 세계적으로 통화 정책 변화의 최전선에 있던 중앙은행이 올해 금리 인하 전망에 있어서는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22일 7회 연속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되는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팬데믹이 시작될 때 주요 중앙은행 중 가장 먼저 완화 조치를 취했고, 그 후 또 가장 먼저 금리를 인상했다.

그러나 고착화된 인플레이션과 정체된 경제로 인해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1년 전 채택한 "지켜보고, 걱정하고, 기다리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시장은 뉴질랜드 중앙은행이 10월에 금리를 인하하리라 전망하고 있는데 이는 6월에 움직일 것으로 예상되는 유럽중앙은행, 8월 영란은행, 9월 연방준비제도보다 뒤쳐진 것이다. 스위스와 스웨덴은 완화를 시작했다.

⊙ G7 재무장관 회의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들은 오는 24~25일 회의를 열고 동결된 러시아 자산으로부터의 수입을 우크라이나의 전쟁 노력을 돕기 위해 사용하려는 유럽연합의 계획을 지지할 것이라고 순번제 의장국을 맡고 있는 이탈리아가 밝혔다.

G7은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 직후 약 3000억달러 상당의 금융 자산을 동결했으며, 그 이후로 이 자금을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사용할지 여부와 방법을 논의해 왔다. 미국은 자산을 전액 압류할 것을 제안했지만, 유럽은 유로화에 대한 위협과 법적 영향을 이유로 이를 주저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또 이번 회의에서 대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공유하는 방법에 대한 국제 협상을 되살리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 美주식시장/주간전망

• 기록적인 반등세 지속될 듯

뉴욕, 5월20일 (로이터) -

지난주 미국 증시를 사상 최고치로 끌어올린 반등세는 전례에 비춰볼 때 앞으로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5월에는 경기 냉각에 대한 새로운 신호들이 인플레이션 우려를 진정시키면서 미국 3대 주가지수가 모두 지난주 사상 최고치로 상승했다. 4월에 4% 이상 하락했던 S&P500지수는 이제 올 들어 현재까지 상승률이 11%에 달한다.

과거 추세를 추적하는 시장 전략가들은 주식시장이 비슷한 규모의 하락에서 회복할 때 모멘텀을 구축하는 경향이 있으며, 손실분을 만회한 후에도 랠리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현재 반등이 이러한 패턴을 따른다면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트루이스트 어드바이저리 서비스의 공동 최고투자책임자인 키스 레너는 과거 S&P500지수가 5% 하락 후 반등한 뒤 평균 17.4%의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17일 기준 지수는 4월 저점 대비 근 7% 상승했다.

2009년 이후의 데이터를 연구한 레너는 "일단 저점을 찾으면 시장은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보았던 것보다 더 많이 간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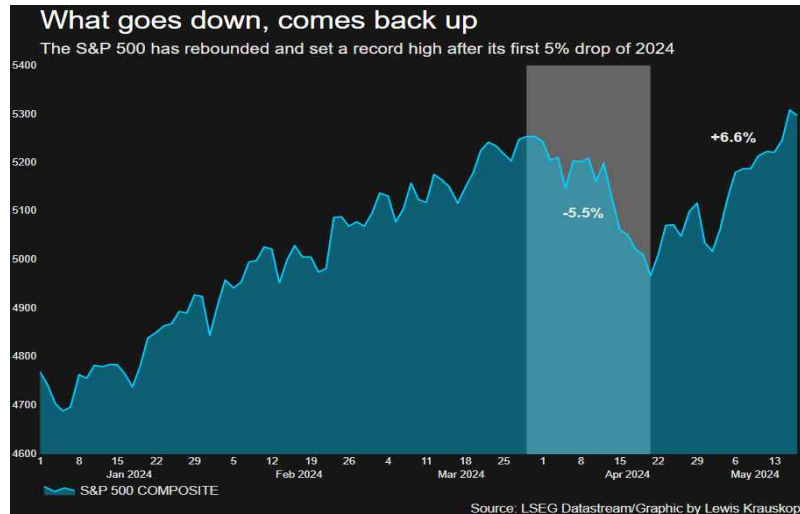
더 광범위한 역사적 비교를 통해서도 현재 강세장의 상승 여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레너의 연구에 따르면 1950년대 이후 강세장의 상승률 중앙값은 108%로, S&P500이 2022년 10월 이후 50% 가까이 상승한 것과 비교된다.

레너는 또 강세장 기간을 봤을 때 중앙값은 4.5년이 조금 넘는데 현재 강세장이 시작된 이후로 1.5년을 조금 넘긴 상태라고 밝혔다.

투자자들은 경제가 이른바 연착륙을 향해 가고 있다는 새로운 낙관론과 실적 호조에 대한 전망을 추가 상승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지적했다.

오는 22일에는 인공지능에 대한 열기로 주가가 급등한 반도체 대기업 엔비디아가 분기 실적을 발표해 시장의 모멘텀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투자자들은 또한 이번 주 내구재와 소비자 심리 데이터를 주시하며 올해 금리 인하를 뒷받침할 만큼 성장이 냉각되고 있는지에 대한 추가 신호를 찾으려 할 것이다.



CFRA의 수석 투자 전략가인 샘 스토발은 시장 반등 후 다양한 영역에서 어떤 성과가 나는지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1990년 이후 35번의 시장 반등을 연구한 스토발은 증시 반등을 주도한 S&P500 업종은 증시가 계속 상승하는 대부분의 기간 동안 전체 시장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기술.SPLRCT, 유틸리티.SPLRCU, 부동산.SPLRCR은 최근 시장 반등에서 각각 11.3%, 10.1%, 7.9% 상승했다.

차트 패턴을 연구하여 시장 추세를 파악하는 투자자들은 강한 모멘텀이 주가를 계속 상승시킬 수 있는 근거도 발견했다.

위스콘신 루터란 대학의 독립 투자 전략가이자 경영학 교수인 윌리 델위시는 현재 S&P500 11개 업종 모두 200일 이동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소 9개 업종이 이러한 추세선 위에 있을 때, 그 시점부터 S&P500의 연평균 수익률은 13.5%를 기록했다고 델위시는 밝혔다.

물론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주식이 궤도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소비자 물가가 진정되고 노동 시장이 완만하게 둔화되고 있지만, 경기 냉각 추세가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는 연준이 금리를 유지하거나 다시 인상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강한 경제에 대한 우려를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다.

고평가 우려도 있다. LSEG 데이터스트림에 따르면 S&P500의 주가수익비율은 20.8로 역사적 평균인 15.7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도이치은행 애널리스트들은 메모에서 미국 대선으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과 중동 및 우크라이나 분쟁으로 인한 리스크도 올해 변동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지연 기자)

((jiyoun.kim@thomsonreuters.com))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금주 국내 경제 주요 일정

서울, 5월20일 (로이터) - 이번 주 국내 주요 경제 일정

5월20일(월)

- ⊙ 한국은행: BoK 이슈노트: 우리나라 기업부채 현황 및 시사점 (12:00)
- ⊙ 금융위원회: 부동산PF 시장동향 점검회의 개최

5월21일(화)

- ⊙ 관세청: 5월 1일~20일 수출입 현황
- ⊙ 한국은행: 2024년 5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06:00)
- ⊙ 기획재정부: 부총리 대외경제자문회의 (08:30)
- ⊙ 한국은행: 2024년 1/4분기 가계신용(잠정) (12:00)

5월22일(수)

- ⊙ 한국은행: 2024년 4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 (06:00)
- ⊙ 한국은행: 2024년 5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 (06:00)
- ⊙ 한국은행: 2024년 1/4분기 국제투자대조표(잠정) (12:00)
- ⊙ 기획재정부: 2024년 1/4분기 대외채권·채무 동향 (12:00)
- ⊙ 기획재정부: 부총리 G7 재무장관회의 (22~26일, 이탈리아 스트레사)

5월23일(목)

- ⊙ 한국은행: 금통위 본회의(통방) (09:00)
- ⊙ 한국은행: 총재 통화정책방향 기자 간담회 (11:10)
- ⊙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 ⊙ 한국은행: 경제전망(2024.5월) (13:30)
- ⊙ 금융위원회: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 개최 (09:00)
- ⊙ 기획재정부: 2024년 6월 국고채 발행계획 (17:00)
- ⊙ 한국은행: 2024년 6월 통화안정증권 발행계획 (17:00)

5월24일(금)

- ⊙ 기획재정부: 1차관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09:30)
- ⊙ 한국은행: 2024년 4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 (12:00)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서울, 5월20일 (로이터)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날짜	시간	국가	지표	기간	로이터 전망	이전수치
5월20일	10:15	중국	대출우대금리 1Y	5월		3.45%
5월20일	10:15	중국	대출우대금리 5Y	5월		3.95%
5월21일	17:00	유로존	경상수지 NSA, EUR	3월		31.64B
5월22일	08:00	일본	로이터 단칸 제조업지수	5월		9
5월22일	08:50	일본	기계류 주문 MM	3월	-2.2%	7.7%
5월22일	08:50	일본	수출 YY	4월	11.1%	7.3%
5월22일	08:50	일본	수입 YY	4월	9.0%	-5.1%
5월22일	20:00	미국	모기지마켓지수	5월17일 주간		198.1
5월22일	23:00	미국	기존주택판매	4월	4.22M	4.19M
5월23일	09:30	일본	지분은행 제조업 PMI 잠정치 SA	5월		49.6
5월23일	17:00	유로존	HCOB 제조업 PMI 잠정치	5월	46.2	45.7
5월23일	17:00	유로존	HCOB 서비스업 PMI 잠정치	5월	53.4	53.3
5월23일	21:00	미국	건축허가건수 수정치	4월		1.440M
5월23일	21:30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5월13일 주간	220k	222k
5월23일	21:30	미국	전미활동지수	4월		0.15
5월23일	22:45	미국	S&P글로벌 제조업 PMI 잠정치	5월	50.0	50.0
5월23일	22:45	미국	S&P글로벌 서비스업 PMI 잠정치	5월	51.3	51.3
5월23일	23:00	유로존	소비자신뢰지수 잠정치	5월	-14.0	-14.7
5월23일	23:00	미국	신축주택판매	4월	0.675M	0.693
5월24일	08:30	일본	CPI MM NSA	4월		0.3%
5월24일	21:30	미국	내구재주문	4월	-0.7%	2.6%
5월24일	23:00	미국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확정치	5월	67.6	67.4

• 금주 해외 경제 주요 이벤트 (괄호 안은 한국시간)

5월20일 (월)

- ⊙ 마이클 바 연방준비제도 부의장, 애틀랜타 연방은행 주최 2024 금융시장 컨퍼런스서 연설 (오후 10시)
- ⊙ 크리스토퍼 윌러 연방준비제도 이사, 연방준비제도이사회와 뉴욕 연방은행 주최 컨퍼런스 환영사 (오후 10시)
- ⊙ 필립 제퍼슨 연방준비제도 부의장, MBA 컨퍼런스서 연설 (오후 11시30분)
- ⊙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방은행 총재, 애틀랜타 연방은행 주최 2024 금융시장 컨퍼런스 환영사 (오후 9시45분), 만찬 세션 사회 (21일 오전 8시)
- ⊙ 휴장국가: 인도, 캐나다 등

5월21일 (화)

- ⊙ 호주 중앙은행 5월 통화정책회의 의사록 공개 (오전 10시30분)
- ⊙ 토마스 바킨 리치몬드 연방은행 총재, 리치몬드 연방은행 주최 2024 지방 투자 컨퍼런스 개회사 (오후 10시)
- ⊙ 크리스토퍼 윌러 연방준비제도 이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주최 행사에서 연설 (오후 10시)
- ⊙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 총재, 2024 거버넌스 문화 개혁 컨퍼런스 개회사 (오후 10시5분)
- ⊙ 마이클 바 연방준비제도 부의장, 댈러스 연방은행 주최 컨퍼런스 토론 참석 (22일 오전 0시45분)
- ⊙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방은행 총재 ·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방은행 총재 · 수전 콜린스 보스턴 연방은행 총재, 애틀랜타 연방은행 주최 2024 금융시장 컨퍼런스 패널 토론 참석 (22일 오전 8시)

5월22일 (수)

- ⊙ 뉴질랜드 중앙은행, 금리 결정 및 통화정책 성명 발표 (오전 11시)
- ⊙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 유럽증권시장감독청 주최 온사인 행사에 영상 메시지 (오후 5시5분)
- ⊙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 시카고 연방은행 주최 지주회사 심포지엄 개회사 (오후 10시40분)
- ⊙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4월30일-5월1일 회의록 공개 (23일 오전 3시)
- ⊙ 휴장국가: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5월23일 (목)

- ⊙ G7 재무장관 · 중앙은행 총재 회의 (25일까지)
- ⊙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방은행 총재, 스탠포드대 경영대학원 MBA 거시경제 수업 화상 Q&A 세션 참석 (24일 오전 4시)
- ⊙ 휴장국가: 인도네시아, 인도 등

5월24일 (금)

- ⊙ 크리스토퍼 윌러 연방준비제도 이사, 레이카비크 경제 컨퍼런스에서 연설 (오후 10시35분)
- ⊙ 휴장국가: 인도네시아 등

▶ 지난주 로이터 한글 뉴스 서비스 주요 기사

• 美 외환시장 접근성 척도 제3자 FX거래, KB 싱가포르-도이치 런던 간 첫 거래 완료

서울, 5월16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외환제도 구조 개선의 공식 시행일이 두 달 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제3자 FX거래가 처음으로 이뤄져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 외환시장 접근성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16일 외환당국에 따르면 해외외국환취급업무기관(RFI)으로 등록된 KB국민은행 싱가포르 지점과 도이치 은행 런던 지점은 지난 10일 약 300억원 규모의 FX스왑 거래를 체결했다. 결제일은 14일로 제3자 FX 거래로는 첫 사례다.

이번 거래는 국민은행 싱가포르 지점이 한국 국채 투자자금의 환리스크 헤지하기 위해 실시한 FX스왑의 만기 연장 거래였다. 국민은행 싱가포르 지점은 설립과 영업에 있어 현지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를 받기 때문에 국내 증권투자 분류시에는 외국인 투자자로 인정받는다.

제3자 FX거래는 외국인 투자자가 본인 명의 계좌가 없는 은행과도 환전할 수 있는 거래로 사실상 외국인 투자자들이 시장 접근성 측면에서 꾸준히 요청해 온 사안 중 하나다.

원래는 본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은행을 통해서만 환전과 결제가 가능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격 경쟁력을 고려해 은행을 선택할 수 없었고, 국내 수탁은행을 이용해야만 했다.

외환당국은 작년 2월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 발표 이후 유권 해석과 규정 개정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전용계정을 통한 추가 계좌 개설 없이도 수수료가 저렴한 은행과 거래할 수 있도록 이른바 '제3자 FX'를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제3자 FX 거래 활성화를 위해 국내 증권결제에 대한 일시적 원화차입까지도 허용했다.

현재 외환법규상 원화 차입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데 이는 위기가 발생했을 때 외국인의 원화투매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당국은 국내 수탁은행들의 고객 자금배분 정보 등에 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수탁은행의 업무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도 주력해 왔다.

당국은 제3자 FX거래 활성화가 오는 7월 정식으로 시행할 외환제도 개선방안의 성공적 정착에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원화 자산 투자를 많이 하는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거래은행을 RFI로 등록 유도할 수 있어 유리한 측면이 있다. 이 때문에 원화 자산 시장에 투자하는 전체 시장참가자를 늘리는 효과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RFI가 실수급 기반의 외환거래를 위해 제3자 FX거래를 통해 증권투자 물량을 확보하는데 주력하면서 전반적인 시장 유동성이 확대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도 기대할 수 있다.

지난 10일까지 RFI 등록을 마친 외국금융기관은 총 22곳이다.

국내은행도 가격 경쟁력을 갖춘다면 해외투자자와의 접점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당국은 7월 외환제도 개선안의 정식시행 이전에 글로벌 자산운용사 등과의 다양한 시나리오 거래를 통

해 발생가능한 문제가 없는지 지속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당국자는 "한국 외환시장에서는 제3자 FX거래가 안된다고 많이 생각하지만, 첫 번째 케이스가 만들어진 데 의미가 있다. 이를 기본으로 많은 케이스가 만들어질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편집 임승규 기자)

((yena.park@thomsonreuters.com : +82(010) 62147029:))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칼럼) - 4월과 5월 금통위 결정 여건, 얼마나 달라졌나

이 칼럼은 저자의 개인 견해로 로이터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 5월17일 (로이터) 임승규 기자 -

지난달 25일 1분기 국내총생산(GDP) 속보치가 발표됐을 때 한국은행 내부는 별집이 됐다. GDP 발표 불과 2주전 한은 조사국이 금융통화위원회에 보고한 1분기 GDP 전망치(전기비) 0.6%를 두 배 이상 뛰어넘은 1.3% 성장률이 나왔기 때문이다.

당장 4월 회의에서 금리인하의 필요성을 주장했던 금통위원들은 그야말로 논리 모순에 빠졌다.

내수 부진으로 경기는 악화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에서 물가 안정을 전제로 금리인하를 준비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는데 막상 GDP 수치상으로는 어디서도 내수 부진의 조짐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미국의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갔다. 1월부터 3월까지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시장 컨센서스를 모두 상회하며 물가가 안정화될 것이라던 연방준비제도의 전망을 무색하게 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었다. 여기에 3월 비농업고용지수가 30만3000명 늘어 시장 예상치 21만2000명을 10만 명 가량 웃돌았고 소매판매, 제조업 생산 등 모든 경제지표가 호조세를 보였다.

시장에선 연준의 첫 금리인하 시점으로 11월 또는 12월을 반영하기 시작했고 일부에서 금리인상 전망이 슬금슬금 늘어났다. 여기에 엔화가 160엔까지 급등하는 등 '엔저 대망론'이 확산하면서 원화도 1400원대 근처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였고 중동전쟁 여파로 국제유가 상승세도 이어졌다.

▲한은 총재의 '인하 원점 재검토 발언'.."4월과 상황이 다르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통화정책 원점 재검토' 발언을 한 것도 이 시점이다. 지난 2일 아시아개발은행(ADB) 총회 참석차 방문한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이 총재는 4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당시와 상황이 바뀐 만큼 금리인하 시점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4월 회의 때와 비교해 달라진 세 가지 요인으로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 후퇴, 호조를 보인 한국의 1분기 경제성장률, 중동 사태 등 지정학적 긴장에 의한 유가·환율 변동성 확대를 꼽았다.

금통위가 4월 통화정책방향 성명문에서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장기간 지속할 것'이라는 표현을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할 것'이라고 바꾸며 사실상 금리인하 검토에 들어갔음을 밝힌 지 불과 2주 만에 상황이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다.

이 총재나 금통위 입장에서 당초 이달 회의에서 한 두명의 금통위원이 금리인하 소수의견을 내고 7월 또는 8월 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하는 걸 기본 시나리오로 염두에 뒀을 것이다.

하지만 대내외 상황 변화를 감안해 금리 동결 기조를 '다시 장기간' 유지하는 쪽으로 시나리오를 재구축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거라고 보는 게 맞을 듯하다.

이렇게 되면 7월 또는 8월 금리인하를 염두에 두고 움직이던 위원들도 당장 인하 의견을 고수할 명분이 사라질 수 있었다. 시장은 이런 가능성에 반응했고 연내 인하 프라이싱이 사라졌다.

▲연준 9월 인하와 국내 2분기 GDP 부진 시나리오

하지만 금리인상까지 거론되던 미국 시장의 분위기가 급변하면서 금통위원들도 애매한 입장이 됐다.

고용과 소비 등 4월 이후 나온 대부분의 경제지표가 시장 컨센서스를 크게 하회하며 미국 경제가 둔화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여주면서다. 이민 등 일부 변수가 미국 경제의 급속한 둔화를 저지한 것을 넘어 오히려 끌어올리면서 그동안 시장의 전망을 우습게 만들었지만, 결국 2분기 둔화 흐름 자체를 되돌리지는 못했음을 확인하고 있다.

여기에 금리인상은 없다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확인까지 더해지면서 달러/원 환율도 하향 안정세로 돌아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총재가 한 말이 있기 때문에 다음주로 예정된 금통위 회의에서 일정 부분 매파 시그널이 나올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하지만 상기한 상황 변화를 면밀히 하나씩 따져봤을 때 지난 4월 금통위 통방과 이달 통방 사이에 엄청난 간극이 있느냐에 대해선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이 총재의 발언 당시 시장은 연준의 연말 금리인하 또는 금리인상 가능성에 경도돼 있었다. 연준이 연말에나 금리인하에 나서는 게 기본 시나리오라면 금통위의 7월 또는 8월 인하 시나리오 역시 사장(死藏)될 수밖에 없고 인하까지 최소 한 분기 이상은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온다.

하지만 현재 시장은 연준의 9월 금리인하 가능성을 100%로 반영하고 인하 기대를 연내 두 차례까지 올려 잡고 있다. 11월 미국 대통령선거를 감안하면 연준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한 번의 속제를 마무리하려 할 것이다. 9월은 그야말로 마지노선이라고 본다.

연준이 9월이니 우리는 10월 정도로 간단히 계산하면 편할 것이다. 금통위 입장에선 미국의 금리인하가 늦어진다고 해도 1분기 국내 GDP 성장세를 감안하면 우리도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겼다고 판단해 '금리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내놓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연준이 9월 인하 결심을 한다면 결국 8월1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인하 임박 시그널을 줄 것이라는 게 함정이다. 그렇다면 8월 금통위는 연준 인하에 대한 확신 속에 국내 경제 이슈만 놓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시점이 된다.

경기가 워낙 좋으니 금통위가 미국보다 먼저 나설 이유는 없다는 주장도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1분기 GDP 서프라이즈의 기저효과가 등장한다. 한은 예상치의 두 배가 넘는 성장은 그만큼 후폭풍이 클 수밖에 없다. 지속될 수 없는 건 지속될 수 없기 때문이다.

기저효과만 감안했을 때 2분기 국내성장률이 부진할 것이라는 데 대해선 이견이 없기 어렵다. 상황에 따라 역성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뒤돌아 보니 비슷한 풍경..금통위, 더 신중히 움직여야

8월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으니 '설레발'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4월이나 지금이나 이 가능성 자체를 달을 수 없다는 것이다. 연준의 9월 인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아예 연내 인하가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고 그 때는 금통위도 금리인하 시점에 대한 원점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연준이 8월초에 9월 인하 시그널을 준 후 열리는 금통위 회의에서 2분기 GDP 부진 성적표를 받아든 위원들이 금리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의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다.

다만 이번에 크게 헛발질을 한 한은 조사국이 2분기에도 크게 빛나갈 가능성을 여전히 고려해야 한다면 더 그렇다.

결국 1분기 GDP 호조가 구조적 요인에 의한 것인지 일시적 요인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다. 일단 한은 조사국은 1분기 GDP 호조에 삼성전자 갤럭시S24 판매 호조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관광객 증가 등 다른 여러 요인들도 거론되겠지만 이같은 성장세 지속 여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보자.

4월 금통위 회의 때와 이달 금통위 회의의 사정이 얼마나 바뀌었나?

8월 금통위 회의가 라이브 이벤트가 될 가능성은 여전히 살아 있다. 6월까지 미국 경제지표 둔화세가 뚜렷하다면 연준이 인하 시점을 더 당길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

이 가능성을 달아버리면 금통위의 왕복달리기 리스크 역시 그만큼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뭔가 엄청나게 돌아서 왔는데 뒤돌아 보니 지나온 풍경이 많이 달라 보이지 않는다.

(편집 박예나 기자)

((seunggyu.lim@thomsonreuters.com ; +822 6936 1466;))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국내전문가반응) - 美 CPI 올해 첫 둔화에도 “금리 인하 시점 앞당기기는 어려울 듯”

서울, 5월16일 (로이터) -

모처럼 예상을 하회한 미국 소비자물가 지표에 시장은 환호했지만 국내 전문가들은 아직은 물가 안정을 자신하기에는 이르다고 진단했다.

15일(현지시간) 미국 노동부 노동통계국 발표에 따르면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월비 0.3% 상승해, 로이터 전망치인 0.4%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비로는 3.4% 상승해 전망치에 부합했다.

이런 가운데 소매판매 지표도 예상 외로 보합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시장에서는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강화됐다. 미국 국채 수익률과 달리는 큰 폭으로 하락했고, 뉴욕 주요 주가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문가들은 물가 오름세가 가속화되고 있지 않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아직은 물가 안정과 연준의 조속한 금리 인하를 기대하기에는 이르다고 밝혔다.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연준의 목표치인 2%를 크게 상회하고 있고, 서비스 물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물가의 추세적 둔화를 확신하기에는 이르다는 것이다. 또한 앞서 발표된 생산자물가지수(P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온 점도 안도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4월 PPI 상승률은 전월비 0.5%로 전망치 0.3%를 상회했다.

그러면서 연준의 하반기 금리 인하 전망은 여전히 유효하나, 금리 인하 시점이나 폭이 조정되기 위해서는 향후 몇 달 간 인플레이션 지표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4월 미국 CPI 결과와 관련한 국내 주요 전문가들의 코멘트이다.

▲ 이정훈, 유진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

"1분기 인플레이션 서프라이즈 이후 둔화 추세를 재확인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4월 소매판매 데이터도 미국 수요가 한단계 안정될 가능성 시사했다. 금리 인상 가능성은 희박하며, 연내 인하 기대는 유효하다. 그러나 기저 인플레이션 압력이 아직 높고, 추세적 둔화에 확신을 가지려면 최소 2~3회의 긍정적인 데이터가 더 필요하다. 고용이 여전히 좋기 때문에 연준은 조금 더 느긋하게 인플레이션 둔화를 확인한 후에 인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 전규연, 하나증권 이코노미스트

"미국 4월 생산자물가와 소비자물가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며 물가에 대한 해석이 복잡해졌다. 소비자물가의 예상치 하회로 물가에 대한 경계감은 소폭 완화되겠지만, 여전히 물가 안정을 자신하기 일러 금리 인하 시점이 앞당겨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9월 첫 금리 인하 전망을 유지한다."

▲ 이남강·문다운, 한국투자증권 연구원

"이번 CPI와 PPI를 반영한 4월 PCE 인플레이션을 계산한 결과,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은 전월대비 0.30%, 근원 인플레이션은 0.29%로 추정된다. 이는 3월 수치(헤드라인과 근원 모두 0.32%)와 유사한 수준으로 물가 오름세가 가속화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연준 위원들이 3월 SEP에서 전망한 물가 경로를 여전히 상회하는 수준으로 기준금리 인하 기대를 강화하기는 어려

올 것으로 예상된다."

▲ 박성우, DB금융투자 애널리스트

"전년 대비 헤드라인 CPI는 6월까지 3%대 중반 부근에서 등락할 것으로 예상하며 8~9월 정도가 되어야 2%대로 떨어질 수 있다. 현재 3.6%인 전년 대비 근원CPI 상승률은 연말까지 3%대 초반 수준으로 완만히 둔화되는 흐름을 예상한다. 실질 건축 수위 조절을 위한 연준의 하반기 금리 인하 구도는 유효하지만 인플레이션 지표를 몇 달 동안 더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본다. 현재로서는 2%대 전년 대비 헤드라인 CPI 확인이 가능한 9월 FOMC가 첫 인하 시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 정여경, NH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

"미국 헤드라인 CPI는 전월비 0.2% 상승으로 둔화되어야 하반기 3%에 안착 가능하다. 다만, 외식 및 개인관리 등 서비스 물가 상승 압력이 남아있는 점을 감안하면 전월비 0.2%로의 둔화 경로는 상반기 내에 어려워보인다. 미국 헤드라인 CPI 꺾적은 2분기 3.4%로 고점, 하반기에는 유가가 하방압력으로 작용하며 3.3%로 소폭 둔화될 전망이다."

(문윤아 기자: 편집 박예나 기자)

((younah.moon@thomsonreuters.com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해외전문가반응) - 中, 지방 정부에 주택 매입 허용... 모기지 금리 인하

서울, 5월17일 (로이터) -

허리핑 중국 부총리는 17일 주택 정책에 관한 온라인 회의에서 지방 정부 당국이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일부 주택을 "합리적인" 가격에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관영 신화 통신이 전했다.

또 중국인민은행이 17일 발표한 세 가지 성명에 따르면 중국은 부진한 부동산 수요를 촉진하기 위해 주택 구매자의 모기지 대출 금리와 계약금 비율을 인하할 예정이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며 중국 CSI300 부동산 지수는 4% 이상 급등했다.

다음은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반응이다.

◆ 브루스 팡 홍콩 존스 랭랭 라살 중국 수석 이코노미스트

"인민은행의 모기지 금리 인하와 계약금 비율 인하와 같은 조치는 중국이 수요 측면에서 시작하여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기 위해 통화 정책을 사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최근 거시 데이터와 결합하면 부동산 시장의 반등은 주민 소득, 기업 신뢰, 시장 심리, 경제 성장 기대감의 협력이 필요한 장기적인 게임처럼 보인다."

◆ 디폴트된 상하이의 개발업체 고위 임원

"이번 재고 정리 정책은 이전의 모든 정책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강력한 것으로 평가된다. 심리적으로 투자자들이 정부가 '대금을 지불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하고, 부동산에서 은행과 지방 정부로 위험을 이동시키고 있다."

◆ 레이몬드 청 CGS 인터내셔널 증권 중국 리서치 홍콩 헤드

"이번 두 가지 조치는 시장 심리를 개선하고 개발업체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첫 번째 주택 구매자의 계약금 15%는 2008년 아시아 금융 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한편, 최저 모기지 금리가 폐지됨에 따라 은행 시스템에 풍부한 유동성을 감안할 때 모기지 금리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조치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일련의 다른 지원 정책 및 정부의 개발업체 주택 매입 가능성과 함께 중앙 정부가 부동산 시장 문제 해결에 대한 진지하며 의지를 갖고 있음을 시사한다."

◆ 래리 후 맥쿼리 수석 중국 이코노미스트

"전반적으로 정부가 주택 재고 매입에 나선 것은 긍정적이고 고무적인 방향이다."

"하지만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미칠지 평가하기 위해서는 누가 매입 자금을 지원할 것인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얼마나 많은 자금을 지원할 것인지가 핵심적인 문제다. 지방 정부의 자금 지원은 중앙 정부보다 훨씬 더 제한적일 것이기 때문이다. 여전히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모기지 금리 인하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최후의 구매자가 되어야 한다."

(신안나 기자)

((anna.sheen@thomsonreuters.com))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